

LAN연구조합 연구과제 추진방안

우리 협회회의실에서는 지난 6일 삼성전자의 최형석 수석, ETRI의 강훈실장, 전병천선임을 비롯해 교보정보통신의 이준호과장등 5개업체의 실무자가 모여 LAN연구조합의 연구과제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TM LAN시스템관련, 무선 LAN시스템관련, SWITCHING HUB분야등 3분야로 나누어 연구과제를 검토했다.

먼저 ATM LAN분야에서는 'ATM Network Interface Card개발'을, 무선LAN시스템분야에서는 무선LAN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 개발, 유·무선 Interface Bridge, PC용 무선LAN Card등 3개분야를, 또한 SWITCHING Hub분야에서는 'ATM Backbone을 지원하는 Switching Hub개발'을 연구과제 대상으로 채택하여 추진키로했다.

한국LAN 연구조합 설립인가 승인

우리 협회내 한국LAN 연구조합은 지난 3월 6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공식적인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한국LAN연구조합의 설립목적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종단구조인 LAN사업 활성화와 LAN분야에 대한 국내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LAN분야의 공동 애로기술, 관련 첨단기술 등 기술적 과제를 상호 협동하여 해결함으로써 정보산업 기술의 혁신을 통한 관련업계 성장등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다.

사업목표는 각종 기술개발과 LAN관련 표준화 시험 및 인증 지원, LAN관련 협력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및 개발결과 활용사업, LAN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기타 조합원 상호간 유대강화와 산업활성화를 위한 활동등이다.

새롭게 설립된 LAN연구조합은 국가 목표사업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형성하는데 있어 업계간 협력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 활동을 통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심있는 업계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문의전화 : 5131-127, 신영섭)

CALS Pacific '96관련 회의

우리 협회에서는 한국CALS /EC기술협회의 김동

훈(중앙일보사 고문) 사무국장을 비롯, 협회임원 5명이 한자리에 모여 CALS Pacific '96개최전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협회와 중앙일보사가 공동 추진키로하고 추진해온 CALS Pacific '96행사를 '한국CALS /EC기술협회'에 이관키로 했다.

이로써 우리협회는 후원기관으로 설정됐고 한국CALS /EC기술협회와 중앙일보사가 공동 주최기관이 된 것이다.

주최기관의 변경내용을 WCGF(World Computer Graphics Foundation) 및 일본 CALS 연구조합에 통보했다.

한국EC협의회 운영

우리 협회내 한국EDI협의회는 기존의 한국EDI협의회를 한국EC협의회로 개편 운영키로 했다.

전문적인 분과활동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 개편된 한국EC협의회는 국내 EC /CALS산업의 활성화의 기반조성 및 EC /CALS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다.

한국EC협의회는 앞으로 ▼EC /CALS산업의발전방안 마련 및 정책자문, ▼CALS Pacific'96 개최추진, ▼APEC /EC WG과의 상호협력, ▼해외 EI /VC사례연구, ▼해외 EC /CALS동향조사 및 제공을 위해 활동해 나간다.

'96 정보통신산업 실태조사 실시

우리 협회는 정보통신산업관련 10,0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5월 15일까지 '96 정보통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통계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과 정부의 정책입안 및 기업의 장단기 경영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이번 조사결과는 올 중순경인 7월에 '정보통신통계연보'로 발간될 예정이다.

제44회 이사회 개최

우리 협회는 타워호텔 로즈룸에서 지난 3월 12일 남궁석회장은 비롯해 임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4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3회 이사회 의사록 보고와 제 규정 개정건, 회원가입 승인건, 회원제명건, 상근임원 선임건 및 신입인사의 상건례가 있었다.

회원가입승인건에서 통과된 신규가입업체는 제일 씨엔씨(주), 텔레웨어(주), 한국후지쯔(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주)에어링크코리아, 한솔텔레콤(주)이며 회원사중 제명된 업체는(주)가인시스템, 동진정보통신(주), (주)창언정보, 한국메디네트(주), (주)창성하이텍 등 5개사이다.

'96 경쟁력강화기반기술개발사업 안내 설명회 개최

우리 협회는 지난 3월 5일 과학기술원에서 정보통신부와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96 경쟁력강화기반기술개발사업 안내 설명회를 가졌다.

경쟁력강화기반기술개발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나 국내 공급기반이 열악한 초고속관련 시스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그동안 높은 투자리스크로 인하여 저조했던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부출연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기존의 출연연구소 중심의 연구개발사업과는 별도로 기술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의 니드를 효율적으로 수용, 과제 공모, 선정 및 관리 등 사업전반을 민간에서 전담하는 형태의 위탁관리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이 사업의 분야는 초고속관련 정보통신산업의 발전방향과 산업 표준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연구 수행, 초고속관련 정보통신시스템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화 이전단계의 연구개발 지원이다.

지원규모는 대기업은 50%까지, 중소기업은 80%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96. 5월~'97. 4월까지이다.

개발과제 선정 및 계약 체결은 이달 4월에 있으며, 개발수행 개시는 내달 5월부터이다.

'정보통신관련법령해설집' 발간

우리협회에서는 정보통신분야 환경변화에 부응하

여 실무 종사자에게 관련 법령의 이해증진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93년에 이어 '정보통신관련법령해설집'을 발간하였다.

이 해설집은 해설편, 수록편, 영역편, 부록편으로 구성된 국내 유일한 해설집으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조계, 민간기업체, 학계, 연구소 및 정부기관의 전문가 17명이 편집계획에서부터 최종감수에 이르기까지 참여하였다.

해설편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비롯한 8개법의 연혁, 제·개정의 배경 및 주요내용을 포함한 조문을 자세히 해설하였고, 수록편에는 8개법, 령 및 시행규칙을 대조식으로 편집하여 일건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불편사항을 보완하였으며, 국제교류시 자주 활용되는 '전기통신기본법'등 4개법을 영역·수록하여 국제화, 개발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부록편에는 수록한 법령과 연관된 모든 고시(41개)와 정보통신부의 9개 정부부처별 정보통신관련 법령 목록 및 현재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총무처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행정종합정보서비스(CAIS)'의 이용안내를 소개함으로써 최신의 법령을 PC통신으로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해설집은 정보통신관련 종사자의 지침서로, 이 분야를 연구 하는 분들에게는 참고서 등으로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입문의 : 협회자료실 (02)513-1189

